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37

의종과 공예태후

사십대 후반의 공예태후는 별궁 마루에 앉아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은 벽란도 산자락에서 열은 빛을 뿌리며 기우는 중이었다. 석양을 볼 때마다 지나간 세월이 아물지 못한 내상처럼 아프게 떠올랐다. 탐진현 옆의 정안현에서 올라와 18세에 연덕궁주로 입궁했다가 인종의 첫 아들을 낳고 몇 년 뒤 숙비가 되었으며, 인종이 병으로 40세에 죽자 첫 아들이 의종으로 즉위했고 자신은 공예태후로 봉해졌던 것이다. 남편인 인종이 젊은 나이에 병사했다고는 하지만 어린 십대 때에는 외척인 이자겸에게 농락당했고, 서른이 되기 전에는 서경의 묘청대사와 개경의 김부식에게 휘둘렸던 것이다. 그런 모욕과 수모를 남편인 인종과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아 숨 쉬는 것조차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20세 어린 나이로 즉위한 아들 의종 역시 아버지 인종이 개경의 문신 세력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모습을 자주 보았으므로 반감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의종은 문신들에게 젖어 있는 유교 풍속도 의식적으로 외면했다. 불도(佛道)나 선풍(仙風)을 좋아했고 개경에 눌러 있기 보다는 서경에 자주 나들이했다. 개경의 유교 풍속을 버리고 싶었고, 신라 때부터 있어 왔던 낭가(郎家, 화랑도)나 불도에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종의 태도는 공예태후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공예태후가 의종을 별궁으로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의종은 조회가 끝나자마자 승지를 앞세우고 태후별궁으로 왔다. 공예태후는 별궁 마당까지 나와서 의종을 맞이했다.

“폐하, 정사로 바쁘신데 불려서 언짢지는 않으신지요?”

“태후 마마,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데 어찌 언짢겠습니까? 조회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 태후마마를 뵈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별실로 드시지요.”

“태후마마께서 우려주시는 탐진 차를 오랜 만에 마셔보겠군요.”

“탐진 발효차는 심신을 편안하게 하지요.”

별실 다실은 크지 않고 작았다. 다관이나, 찻잔, 수구 등은 모두 비색 청자였다. 공예태후는 고향을 잊지 않겠다며 탐진에서 구해온 청자 다기들을 사용했다. 탐진은 인종 때부터 장흥부의 속현이 되어 공예태후의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태후별궁 궁녀가 찻물을 끓여 와서 발효 찻잎이 든 다관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런 뒤, 왕과 태후의 찻잔에 차를 따라놓고 다실을 나갔다. 공예태후는 이십대 후반의 의종이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격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낙마한 탓에 발목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내의에게 치료를 잘 받아 이젠 괜찮습니다.”

격구란 말을 타고 채로 공을 치는 경기였다. 의종은 무신이나 환관들과 편을 갈라서 격구를 즐기곤 했는데, 한 번 경기를 시작하면 화급한 정사도 밀쳐두기 일쑤였다. 따라서 의종을 비난하는 문신들이 적잖았다. 그런 비난이 공예태후에게도 들려왔다.

“앞으로는 격구를 하시되 다칠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고가 나는 법이니깐요.”

“태후마마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공예태후가 격구를 하되 지나치게 하지는 말라고 하자 의종은 선선히 받아들였다. 천성이 착하고 섬세한 의종은 어머니 공예태후의 말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폐하는 음률(音律)에 능하고 시문(詩文)에도 탁월합니다. 그러니 문무를 겸하시어 반드시 명군이 되셔야 합니다.”

“저를 알아주는 분은 태후마마뿐입니다. 아직도 개경에는 역모를 꾸미는 문신세력이 있어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태후마마께서 계시니 울타리처럼 든든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왕권이 실추된 지 오래됐고, 이웃 금나라는 선왕 때보다 더 강성해져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태후마마, 제가 무신이나 환관들과 격구를 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 문신세력을 견제하고자 함입니다. 문신들의 농간으로 아바마마께서 곤욕을 치르시다 돌아가신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태후마마께서도 겪지 않았습니까?”

공예태후가 의종의 찻잔에 탐진 발효차를 또 따라주었다. 찻잔의 크기는 사발에 가까웠다. 그것을 따로 다완(茶碗)이라고 불렀다. 공예태후에게 훈계조의 말을 듣던 의종이 화제를 바꾸었다.

“태후마마께서는 탐진 청자만 좋아하십니다. 여기 다기들 모두 탐진 청자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서른 해가 지났어요. 연덕궁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탐진 청자를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지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태후마마께서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태후마마, 요즘 민가를 헐고 있습니다.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려고 합니다.”

“격구 하시는 것을 줄이신 뒤 정자에서 차분하게 책을 읽고 옛 성인들의 유훈을 받드는 것도 왕화(王化)를 부흥하는 일입니다.”

“태후마마 말씀대로 정자에서 옛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그리 하시면 실추한 왕권이 머잖아 되살아날 것입니다.”

“왕권이 되살아나면 가장 먼저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통치하겠습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생각이십니다. 폐하가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떤 문신은 제가 나약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경의 문신들이 아바마마를 어떻게 능멸했는지 제 눈을 보았기에 그들을 멀리 했을 뿐입니다. 대신에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일찍이 현릉과 창릉을 참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중흥을 위해 서경에 중흥사(重興寺)를 중창했습니다. 앞으로 개경에서 가까운 백주(白州, 황해도 연백)에 중흥별궁도 지을 생각입니다.”

김부식 등이 서경에서 시작한 묘청의 혁명과 서경 출신의 문신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한 뒤, 인종에 이어 의종이 즉위하고 나서도 왕을 흔들어댔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의종은 공예태후의 조언을 들어가며 살얼음을 걷듯 왕권 강화를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고심 중에 하나가 태조 왕건의 능인 현릉과 태조의 아버지 왕릉의 능인 창릉 참배였다. 능을 참배할 때는 문신은 물론이고 무신까지 대동했다. 고려의 건국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환기시키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참배였다.

“우리나라를 중흥시키려는 폐하의 꿈은 지당합니다.”

“음률에나 빠져 있고 시문이나 즐기는 왕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고약한 문신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는 선왕의 뜻을 받들고자 좀 더 진력한 뒤에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권장하는 신령(新令)을 반포할 것입니다.”

“오늘따라 폐하가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폐하, 지근 거리에 두고 있는 신하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감언은 삼키시지 말고 늘 뱉어내야 합니다. 문신들이 역겹다고 환관이나 무신들을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태후마마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태후마마를 잘 모시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더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민가를 혈어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겠다는 것도 사실은 태후마마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가를 혈어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판다면 어찌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민가를 헐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니 폐하가 이 어미를 위로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부당합니다.”

“아닙니다, 태후마마.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 도모하는 일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가 주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택지와 집을 받아 가는 것이니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저와 함께 나가시어 둘러 보셔도 좋습니다.”

“폐하와 함께 바람을 쐬는 일은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갑자기 평장사 최 공이 생각나는구려.”

공예태후는 의종이 밖으로 나가자고 제의한 말에 자못 들켰다. 정궁에서 들려오는 수상쩍은 소문에 늘 시달리고 불안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인종7년(1129)에 눈을 감은 태의 출신의 평장사 최사전이었다. 최사전은 자신을 도성으로 불러 입궁케 했고, 남편인 인종 측근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보필했음이었다. 인종이 이자겸의 횡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왕위를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도 울면서 만류했던 사람이 최사전이었던 것이다.

“평장사 최 공이 폐하 옆에 있다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 공의 미담을 저도 어린 시절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최 공은 탐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요.

그에게 탐진 청자를 언제부터 좋아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탐진에서 귀양살이할 때 도공들을 만나면서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탐진 사람들이 탐진 청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탐진 청자에 고향의 산자락과 바다가 어려 있기 때문이지요. 탐진 청자를 보고 있으면 고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태후마마 말씀을 듣고 보니 수궁이 갑니다.”

“그렇지요. 개경의 벼슬아치들은 탐진 청자가 천하제일이라고 해서 소장하려고 하지만 나는 고향의 빛깔인 까닭에 좋아합니다.”

“태후마마께서 고향을 이처럼 그리워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제야 의종은 공예태후가 금잔, 은잔이 있고 금사입, 은사입한 청동주전자가 있지만 왜 탐진에서 올라온 청자 다기들만 사용하는지를 이해했다. 의종이 말했다.

“태후마마, 이제부터 왕실에서는 청자 그릇들만 들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 또한 태후마마를 위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탐진 청자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송나라 서궁이란 사신이 알려주었지요. 송나라 청자보다 탐진 비색 청자가 더 아름답다고 찬사를 한 까닭에 왕실에서도 차츰 금제품, 은제품이 사라지고 비색청자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송나라 풍속이면 무엇이든 따르려는 문신들은 우리 청자의 가치를 모르지요.”

의종은 공예태후에게 송나라 풍속을 추종하는 문신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는 것도 비로소 알았다. 공예태후에게는 탐진 청자가 곧 고향이나

다름없는 듯했다.

“태후마마, 제가 개경의 문신세력을 경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송나라 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많은데 왜 그들의 문화를 무조건 좇아야 합니까?”

“송나라가 금나라보다 문화가 융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보내야 할 것은 보내야 합니다. 선왕 때 진주사 최유청이 탐진 청자를 가지고 간 것은 좋은 선례입니다.”

의종은 청자 찻잔을 들고 빙빙 돌려가며 눈으로는 비색 빛깔을 보고 손으로는 매끄러운 감촉을 느꼈다. 공예태후에게 탐진 청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청자 다기들이 달리 다가왔던 것이다.

“태후마마, 제가 개경의 문신보다 서경의 문신들을 더 신뢰하는 까닭은 그들은 송나라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낭가나 불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서경의 중흥사를 중창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계림(서라벌)에 가서 낭가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하는 참으로 현명합니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왕권은 다시 회복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융성할 것입니다.”

의종이 밖에 어른거리는 호위군사 그림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마(御馬)와 가마를 대령하라.”

의종은 가능한 한 왕의 수레인 대가(大駕)를 이용하지 않고 어마를 탔다. 격구에 능한 의종에게는 잘 길들인 어마가 있었던 것이다. 두 개의 창문에 보석주렴을 늘어뜨린 탈것은 공예태후 전용 가마였다. 가마 창문을 열어도 밖에서는 보석주렴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마 안에서는 보석주렴 사이로 밖의 동태를 환히 살필 수 있었다.

“태후마마,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팔 곳으로 가서 직접 보시지요.”

“폐하 조용히 가보시지요. 궁중악대를 불러 공연히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중악대가 왕의 거동을 알리면 도성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왕의 행차를 멀리서 봐야지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었다.

공예태후는 우두머리 궁녀 하나만 데리고 별궁을 나와 궁문인 창합문에서 대기했다. 창합문에서 저잣거리로 가는 동안은 가마를 타야 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창을 든 호위군사들이 창합문에 도열했다. 수문장이 수문지기 군사를 시켜 창합문을 열자, 의종과 격구를 자주 했던 수비대장이 군마를 타고 어마 앞에 대령했다. 의종의 어마 바로 뒤에는 공예태후가 탄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다. 접빈을 잘하여 합문의 승선을 오랫동안 겸직해 왔던 이부상서 김거공(金巨公)은 행차의 후미에 섰다. 김거공은 인종20년(1142)에 고려 사신으로 금나라 동경(東京)을 다녀온 적이 있는 언행이 신중한 신하였다. 호위군사들이 어마와 가마를 에워쌌다. 공예태후의 제안대로 궁중악대는 보이지 않았다.



공예태후는 가마 창문을 열고 궁궐 밖에 공기를 들이마셨다. 궁궐 밖은 대부분 초가들이었다. 비좁은 골목 좌우로 초가들이 무리지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초가들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왕의 행차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의종 행차가 궁궐 뒷산의 산자락 밑에 있는 초가마을에서 멈추었다. 특이하게도 궁궐 안이 들여다보이는 마을이었다. 의종이 수비대장을 시켜 이부상서 김거공을 불렀다.

“김 공, 이 마을의 초가를 철거하려고 하오.”

“폐하, 민가에서 궁궐 안이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미 호부에 지시하여 이 마을 양민들에게 더 좋은 터에 집을 지어주라고 했소.”

“백성들이 폐하의 덕을 우러를 것이옵니다.”

이부상서 김거공이 보기에다 궁궐 밖의 마을 터가 명당 같았다. 작은 개울물이 하나 흐르고 있고, 산자락 아래인데도 평평하고 바람이 오가는 땅이었다. 정자가 들어선다면 봄여름가을 아무 때라도 몸을 편안하게 누일 수 있는 장소 같았다.

“정자와 연못을 조성한다면 궁에서 멀지 않은 이곳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정자의 이름은 생각해 두셨사옵니까?”

“물론이오. 이미 태자에게 태평정(太平亭)을 써두라고 말했소. 정자 이름은 태평정이 될 것이오.”

의종은 정자이름을 두고 몇날 며칠 고심하다가 태평(太平)이란 말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태평이란 태평성대를 꿈꾸는 의종의 소원이기도 했다.

“태평성대란 백성들이 몹시 평안하여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세상이 아니겠소,”

“성스러운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를 태평성대라 하옵니다.”

“과인에게 꿈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라에 혼란이 없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이랴오.”

호위군사들이 임시로 의종과 공예태후가 앉아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예태후는 궁궐 밖을 나온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마음이 가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태후마마, 이곳에 정자를 지으려고 합니다.”

“방금 전해 들었습니다. 태평정,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태평정 좌우로는 화초를 심고 진기한 과수를 심을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기이한 바위도 진열하려고 합니다.”

“정자 하나만 짓기에는 터가 넓습니다.”

“태평정 남쪽으로 연못을 파서 개울물을 들이고 그곳에도 정자를 짓겠습니다.”

“그 정자이름은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정자에서 쉬면서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보고 근심을 푸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름보다는 ‘잔잔한 물결을 본다’는 관란(觀瀾)으로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정자 이름이야 시문에 능한 폐하가 지으셔야지요.”

“폐후마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관란정으로 하겠습니다. 하하하.”

의종이 호쾌하게 웃었다. 그러나 공예태후는 의종의 웃음을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신음소리로 들었다. 어쨌든 궁궐 밖으로 나와서 모자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유유자적하고 있다는 것은 더 없이 상쾌한 일이었다. 의종은 공예태후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저의 꿈이 서린 정자와 백성을 위한 정자를 짓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태후마마를 위해서도 정자를 하나 지어야겠습니다.”

“폐하, 고맙기는 하지만 문신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것을 두고 누가 비난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무엇이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자들은 눈만 뜨면 공맹의 도리를 말합니다. 충은 효에서 나오는 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의종은 잠시 뜬눈을 들이더니 공예태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태후마마께서는 고향을 잠시도 잊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응당 태후마마를 고향에 한 번이라도 행차시켜드려야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다만 탐진 청자를 보시며 향수를 달랜다고 하시니 저에게 좋은 방도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평정과 태후마마를 위한 정자를 탐진 청자기와를 가져와 짓는 것입니다. 정자에 앉으시면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공예태후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의종은 순간 공예태후를 위한 정자 이름을 양이정(養怡亭)이라고 지었다. 공예태후가 ‘마음을 잘 돌보고(養) 마음을 늘 즐겁게 가지라(怡)’라는 발원을 담았다. 의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부상서 김거공에게 탐진에 관원을 보내 탐진 가마에서 청자기와를 굽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계속>